

성령 안의 삶 세미나

The New Life in the Spirit Seminars Manual

-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새 지침서 -

Receive the Holy Spirit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SC) 편찬 발행

차 례

차례	2
새 지침서의 특징	3
서 문	4
성령 안의 삶 세미나에 초대된 분들에게.....	5
협조하여 주세요	6
매일 미사 경본	7
개회 미사	7
예수 성심 신심 미사	9
용서와 회개를 위한 미사	11
성령 감사 미사	13
파견 미사	15
성령 안의 삶 세미나 개요	17
매 강의 전 후에 읽어야 할 성경 구절.....	17
세미나의 전체 개요	18
제 1 강의 하느님의 사랑	19
제 2 강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20
제 3 강의 새 생명	21
제 4 강의 하느님의 은총을 받음	25
제 5 강의 성령 안의 세례를 위한 기도.....	27
제 6 강의 성령 안에서의 성장	29
제 7 강의 그리스도로 변화됨	31
기도문	32

새 지침서의 특징

- 새 지침서는 성령 안의 삶 지침서가 가톨릭 본당 공동체의 쇄신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 할수 있도록 가톨릭 교의 신학에 맞게 그리고 가톨릭적 용어 표현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새 지침서는 관련 참고 자료로 대폭 보강하였다.
- 새 지침서는 세미나의 목적을 가톨릭 교의 신학과 교회의 가르침으로 선명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세미나가 신앙 쇄신의 열쇠가 되는 회두/ 회심의 가장 탁월한 도구임을 제시하고 있다.
- 새 지침서는 성사적 관점에서 세례성사 서약갱신 (Renewal of Baptism Vows)과 그리스도교인 입문성사(세례, 견진, 성체성사)를 통해 성령께서 주신 것을 새롭게 표출 (a new release of the Holy Spirit)토록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새 지침서는 세미나의 핵심이 되는 회두/ 회심 (Conversion)이 몇번의 절정의 순간을 수반할 수는 있지만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 새 지침서는 처음 세미나에 참가하는 이들을 도와 주기 위한 사역으로, 그리스도교 성인 입교예식 (RCIA)에서와 같이 후견인 (Sponsors)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 새 지침서는 성령의 선물과 은사는 신자와 공동체가 일상 생활에서 봉사하는 데 필요한 도구, 즉 하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 새 지침서는 7 주 세미나의 주제와 순서는 그전과 동일하나 각 주 가르침의 핵심을 적절하게 보강 개정하였고 그에 맞게 주제 성경를 새로 뽑았다.
- 새 지침서에서도 역시 4 주 가르침과 5 주 가르침 사이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고해성사, 또는 봉사자와의 면담을 권유하고 있으나 이를 세미나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KSC 는 2000 - NSC 간행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새 지침서의 한글판 번역 출판권을 보유하고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새 지침서(New LSS Leader’s Manual)를 소개하는 봉사자 교육 세미나를 통하여 새 지침서의 보급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 문

1967 년 Duquesne Weekend Event (가톨릭 오순절 체험)의 불길이 Notre Dame(OH) 과 Ann Arbor(MI) 등지로 번져가 각기 Covenant Community (계약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니, 곧 South Bend(OH) 에서 하느님 찬미 공동체, Ann Arbor (MI) 에서 하느님의 말씀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Ann Arbor(MI) 의 하느님의 말씀 공동체 (The Word of God Community)에서 개발하여 1972 년에 출간한 The life in the Spirit Seminars Team Manual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봉사자 지침서)는 즉시 가톨릭 오순절 운동의 입문서로 되었고, 실제로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를 중심으로 번져 나아가 2000 년을 기준으로 1 억 이상의 그리스도인에게 오순절 성령강림의 체험을 재현시켜 LSS 의 탁월한 은사적 효능이 실증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말씀 공동체 (The Word of God Community)는 처음부터 Ecumenical Community 로 형성되었고 이 지침서도 역시 초교파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적 쇄신운동이 가톨릭 교회 안으로 심화되면서 점차 가톨릭 신자를 위한 지침서가 새롭게 요구되었습니다.

드디어 2000 년에 The New LSS Leaders' Manual (봉사자 새 지침서)가 새로 NSC 의 후견으로 출간 되었습니다. 새 지침서는 가톨릭 공동체를 위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목표를가지고 출간 되었습니다.

새 봉사자 지침서는 LSS 세미나가 가톨릭 본당 공동체 안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가톨릭 교의 신학과 교회의 가르침에 맞게 선명한 가톨릭 용어로 표현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지침서는 성사적 관점에서 세례성사 서약갱신과 그리스도교인 입문성사를 통해 우리가 받아 누리게 은총: 성령을 새롭게 표출(체험),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쇄신의 자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SC 는 NSC 의 새 지침서의 한글판 번역 출판권을 보유하고 새 지침서를 일선 공동체에 보급함에 있어 위에 열거한 새 지침서의 특징을 충분히 살려 본당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봉사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KSC 는 기존 LSS 세미나 지침서의 탁월한 복음 선교적 은사적 효능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난 날의 경험에 비추어 매주 가르침의 핵심에 보다 적절한 주제성경을 선택 보장하고, 매주 가르침의 주요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수강자들에게 제공하고자 성령 안의 삶 세미나 개요 (KSC LSS Text © 2005) 을 KSC 한글판 교본으로 내 놓습니다.

KSC 는 삼가 새 교본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끄는 하느님의 은사적 선물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발간합니다. 앞으로 이 교본은 매년 일선 봉사자들의 기도와 봉사를 통하여 보장 수정 될 것입니다.

성령 안의 삶 세미나에 초대된 분들에게

성령 안의 삶 세미나 (기초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이 세미나는 여러분들을 더 깊고 더 진실한 신앙생활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성사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나, 그 동안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채 살아왔고, 더욱이 자아라는 굳은 상자 안에 주님을 가두어 둠으로써 하느님의 숨결을 느낄 수 없었고, 성령님의 활동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여 주시며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또 다시 불러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도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에게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나의 현존을 느끼고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행복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대하였으니, 나에게 너희 마음을 열어다오.”

하느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그 분께 열어 주기만을 청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 분께서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간절한 하느님의 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이 세미나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 실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을 통한 하느님의 체험과 또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하느님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느님/ 성령님은 지금도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현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들 지금 모습 그대로 나아 갑시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덤으로 많은 은총의 선물(은사)도 풍성하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묵시록 3; 15-16)

협조하여 주세요

- **공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서로간에 예의와 질서를 지킵시다. 세미나 기간 중 저녁 취침 시간부터 아침 기상 시간까지 다른 형제 자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침묵 합시다. 고해성사와 면담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침묵을 지키며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합시다. 남들이 자는 늦은 밤 시간과 새벽 시간에는 샤워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 **피정의 집 이용에 있어서:** 피정의 집의 기물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또한 기물들을 허락없이 움직이지 맙시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알려 주는 피정의 집 안내에 유의해 주시고, 모르는 사항은 언제나 봉사자에게 문의하십시오.세미나를 마친 후 방 정리는, 봉사자를 통하여 알려드리오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표의 시간을 지킴에 있어서:** 모든 일정은 5 분 전에 준비 합니다. 시간표를 미리 보시고, 시간에 맞추어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점심 시간 기타 여유 있는 휴식 시간을 잘 이용하시어 영적 독서 및 묵상의 시간으로 활용 합시다. 면담 및 고백성사 시간 중에는 잡담이나 남의 방을 방문하지 맙시다.
- **성경 읽기와 매일 묵상에 대하여:** 매 강의 전.후에 읽어야 할 성경 구절들을 읽고 묵상을 하여, 강의 내용을 미리 이해하도록 준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매일 묵상책을 읽으며,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들입니다.
- **식사 시간에는:** 식사 전 기도는 다같이 모여 함께 바칩니다. 식사 시간에는 잘 모르는 형제.자매와 자리를 같이하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식기를 치우는 일에 서로 봉사를 해 줌으로써, 사랑을 실천 합시다.
- **전화 사용 또는 외부와의 연락에 있어서:**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 사용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약품 또는 필수품 구입은 봉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개별적인 외출은 금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도 봉사자의 허락을 받고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미사 봉헌 지향 및 예물에 대하여:** 특별한 지향을 봉헌하는 미사 예물은 준비된 봉헌 봉투에 성명과 지향을 써서, 미사 시작 전에 제대 위(또는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 바구니) 에 놓습니다.

매일 미사 경본

개회 미사

입당송:

너희는 성령의 힘을 받아, 땅 끝에 이르기 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본기도:

주님 성령의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어, 주님의 뜻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 - -

제 1 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탈출 34:5-6,8-9)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뻗뻗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5:4-5, 6-7,8,9,◎6)

◎기억하소서, 주님, 먼 옛날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자애를.

+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진리 위를 걷게 하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당신께서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니 날마다 당신께 바랍니다. ◎

+ 기억하소서, 주님, 먼 옛날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자애를. 제 젊은 시절의 죄악과 저의 잘못은 기억하지 마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생각하시어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

+ 주님께서 선하시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 ◎

+ 가련한 이들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가련한 이들에게 당신 길을 가르치신다. ◎

제 2 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 19, 1-8)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오로가 다시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오로가 말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일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

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그들은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바오로는 석 달 동안 회당에 드나들며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 + 하느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시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 ◎ 알렐루야 ...

복 음: 요한에 의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 3: 16-18)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기도:

주님 이 깨끗한 제사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고, 저희 마음 속에 천상 은총의 힘을 심어 주소서. 우리 주 - -

감사송:

성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께서는 지극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저희를 위하여 몸소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므로써 성부의 뜻을 성취하셨나이다. 그리하여 모든 이가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로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영성체송:

하느님께서는 저의 반석, 저의 성채, 저의구원자 되시으며, 저의 주님, 이 몸을 숨겨 주시는 바위 되시나이다.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성사를 이루시며 저희에게 생명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저희를 주님께에서 갈라놓는 악에서 지켜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 - -

예수 성심 신심 미사

입당송:

그 마음 생각은 영원하시니,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제 그들을 살게 하시도다.

본기도:

아버지 하느님, 저희 마음을 예수 성심의 힘과 열정으로 불 타오르게 하시어, 저희도 그 모습을 닮아 영원한 구원의 한 몫을 얻어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 49:13-15)

하늘아, 환성을 울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를 질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 천대받은 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너 시온은 말하였었지.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3:2-3.4-5.6-7

◎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자랑해 보아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 하여라. ◎

*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우리 함께 그 이름을 높여 드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나를 들어주시고, 온갖 무서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

* 우러러 주님을 보아라, 기꺼우리라. 너희 얼굴 부끄럼이 있을 리 없으리라. 보라, 가엾은 이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씻어주셨도다. ◎

제 2 독서: 에페소에 보낸 바오로의 편지입니다. (에페 3; 14-19)

형제 여러분,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립니다.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돌구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를 박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 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느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느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시편 129; 5. 7

◎ 알렐루야

+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 5; 24-26)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 섰다. 때가 오면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기도: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당신은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 성자를 저희에게 주시기까지 높으신 은혜를 베푸셨으니, 저희도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저희 자신을 합당한 제물로 삼아 아버지께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감사송: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저희를 위하여 몸소 당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심장이 찢리시어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써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성사의 원천이 되셨으니, 모든 이가 구세주의 열리신 성심계로 기꺼이 달려가 끊임없이 구원의 샘물을 퍼내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

영성체송: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같이 흘러나오리라.

영성체 후 기도: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의 성사를 나누어 받고 간절히 비오니,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천상에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

용서와 회개를 위한 미사

입당송: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만드신 것은 하나도 아니 미워하시도다. 뉘우치는 사람의 죄를 아니 보시고 모두 용서하시니, 당신 홀로 우리 주 야훼님 되심이로다.

본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비오니, 당신께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를 자비로이 들으시고, 당신께 고백하는 저희의 죄를 사하시며, 저희에게 너그러우신 용서와 평화를 인자로이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

제 1 독서: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집회서 28;1-7)

복수하는 사람은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주님의 복수를 맞보리라.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러면 기도로써 네 죄는 용서를 받으리라. 이웃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서 하느님께 용서해 달라고 청할 수 있으랴? 자기와 같은 이웃에게 자비를 갖지 못하고서 어찌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으랴? 육에 지나지 않는 주제에 원한을 품는다면 누가 그의 죄를 용서하라?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계명을 충실히 지켜라. 계명을 생각하고 이웃에 대한 원한을 풀라. 지존하신 분의 계약을 생각하고 받은 모욕을 잊으라.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 당신 구원, 그 기쁨 내게 도로 주소서.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내 죄 없이 하소서. 내 잘못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허물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

*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사오며 내 죄 항상 내 앞에 있삽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언었삽고, 당신 눈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

* 하느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이 하소서. 당신의 면전에서 날 내치지 마옵시고, 당신의 거룩한 열을 거두지 마옵소서. ◎

* 당신 구원 그 기쁨을 내게 도로 주시고, 정성된 마음을 도로 굳혀주소서. 주여 내 입시울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당신의 찬미를 전하오리다. ◎

제 2 독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1 요한 1;5-10, 2;1-2)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고 하느님께서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쫓아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공정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나는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이제 너희는 마음을 돌려 내게로 돌아 오라. 나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노라.

◎ 알렐루야

복음: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루가 22: 54-62)

그들은 예수를 잡아 대사제의 관저로 끌고 들어 갔다. 그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르다가 마당 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 앉아 있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을 때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들여다 보며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그 말을 부인하면서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하였다. 얼마 뒤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 께요”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하고 잡아 떴다. 그 뒤 한 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갈릴래야 사람이 아니오?”하며 몰아 세웠다. 베드로는 “여보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하며 끝내 부인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그 때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기도:

주님, 저희가 화해와 찬미의 제물을 당신께 봉헌하오니, 저희의 죄를 자비로이 사하시고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바로 잡아 주소서. 우리 주 ...

감사송: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의의 심판을 내리신 후에도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사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송하며 능품 천사들이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겸손되이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

영성체송: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무척 기뻐하리라.

영성체 후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성체성사로 죄의 사함을 받았사오니, 앞으로는 주님의 은총으로 죄를 피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어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

성령 감사 미사

입당송 : 로마 5; 5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도다.

본기도 :

성령의 비추심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가르치신 하느님,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힘으로 바른 것을 맞들이고, 그 위안을 받으며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 37-39, 41-42)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삼천 명가량 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 ◎ 주님, 당신 열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어라. 주 저의 하느님.
- 주님께서 하신 일이 많고도 많건만은 온 땅에 당신 조물 가득 차있나이다. ◎
- * 열을 거두시면 그들은 숨져버려 드디어 티끌로 돌아가고 마나이다.
- 보내시는 당신 열에 그들은 창조되어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
- * 야훼님 영광은 영원 하소서. 야훼님은 이루신 일 기뻐하소서.
- 이 노래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주님 안에서 나는 즐거우리이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 서의 말씀입니다 (1 고린토 12; 3-7, 12-13)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드립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 14: 16-17, 25-26)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기도 :

주님, 비오니, 저희가 봉헌하는 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성령의 비추심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주 ...

성령 감사송 :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언약하신 성령을 당신 자녀들에게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와 영원히 저희도 천사들이 군대와 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소리 높혀 노래하나이다.

+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

영성체송 : 하느님, 저희에게 하신 일을 완성하소서. 당신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성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

주님, 저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씻으시고 그 은총의 이슬로 젖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

파견 미사

입당송: 로마 5:5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도다.

본기도:

주님,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일치된 신앙과 사랑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1-3, 6, 8, 9)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맥 풀린 넋 대신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정의의 참나무’ ‘당신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라 부르도록 하셨다. 너희는 ‘주님의 사제들’이라 불리고 ‘우리 하느님의 시종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희는 민족들의 재물을 향유하고 그들의 영화를 이어받으리라. 나 주님은 올바름을 사랑하고 불의한 수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에게 성실히 보상해 주고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 주리라. 그들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그들의 자손은 겨레들 가운데에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 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2: 22-23, 25-26, 27 과 29 ㄷ-31

◎ 나는 당신 이름을 겨레에게 전하리다.

* 당신의 이름을 겨레에게 알리고 예배 모임 한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리니,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찬미하여라. 야곱의 후손들아, 주께 영광 돌려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모두 다 조아려라.”

◎

* 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송함도 주께서 주심이니, 주를 경외하는 무리 앞에서 나의 서원 지키리라. 가난한 사람 배불리 먹고 야훼를 찾는 사람은 그를 찬송하리니, 그들 마음 길이 번영하리라. ◎

* 온 세상이 야훼를 생각하여 돌아 오고 만백성 모든 가문이 그 앞에 경배하리니, 이 몸은 주님 덕분에 살고, 오고 오는 후손들이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세세대대로 전하리라. 주께서 건져주신 이 모든 일들을 오고오는 세대에 일러 주리라. ◎

제 2 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8)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 15: 9-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비오니, 당신 가족들이 드리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특은을 받은 저희로 하여금 이미 받은 바를 충실히 지키며,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

성령 감사송 2: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은 각 시대에 알맞은 은혜를 내려 주시며 기묘한 방법으로 당신 교회를 다스리시니,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끊임없이 도와 주시고,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어, 괴로울 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구히 기도 드리며, 기쁠 때에는 계속 감사 드리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주님을 찬미하며 천사와 대천사들이 찬양하며 끊임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

영성체송:

빛을 받아 천상 선물의 기쁨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안에 기뻐하라.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성령을 나누어 받고 성체로 활력을 얻게 된 저희에게 후일에도 계속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어, 저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덕으로 교회를 빛내며, 활동과 사랑으로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성령 안의 삶 세미나 개요

매 강의 전 후에 읽어야 할 성경 구절

제 1 강의 : 하느님의 사랑			
예레미아	31 장	에제키엘	34 장
시편	139 장	이사야	55 장
요한 1 서	4 장	묵시록	3; 20
제 2 강의 :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골로사이	2 장	이사야	53 장
히브리	2 장 9 장	로마서	5 장
요한 복음	3 장	에페소서	2 장
		데살로니카(전)	5 장
제 3 강의 : 새 생명			
갈라디아	5 장	로마서	8 장
골로사이	3 장	요한복음	4 장
창세기	1 장		
제 4 강의 : 하느님의 선물을 받음 / 하느님께로 돌아섬			
요한복음	16 장	고린토(전)	12 장, 14 장
루카복음	19:1-10	베드로(후)	1 장
제 5 강의 : 성령 안의 세례를 위한 안수			
사도행전	2 장, 19 장		
요한복음	10 장, 14 장		
제 6 강의 : 성령 안에서의 성장			
요한복음	15 장	데살로니카(전)	5 장
갈라디아	5:25		
필립비서	2 장		
제 7 강의 : 그리스도가 로 변화 됨			
필립비서	1 장	야고보서	1 장
고린토(전)	3 장	로마서	12 장
갈라디아	2 장	골로사이	1 장
요한복음	15 장		

세미나의 전체 개요

소개:

주님이 부르셨고, 나는 응답하였다. 내 신원의 각성과 갱신 - 은사적으로 각성 갱신된다.

하느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돌아온 탕자 처럼 성령을 통해 아버지 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체험이다.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성령을 통해 나의 개인적 사건이 된다. 구원을 확신한다.

새 생명:

성령강림으로 세상을 복음화 하는 성령의 능력이 내 삶 안에서 일어난다, 나의 생활속에 성령의 지속적인 현존이 있게 된다.

하느님의 선물을 받음:

하느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주님과 나와의 밀접한 인격적 관계의 발견, 성령 안에 잠긴다.

성령 안의 세례(잠김)를 위한 기도:

성령강림의 재현을 위한 안수기도, 심령기도를 시작하고, 성령은사도 현현한다.

성장:

하느님과의 지속적인 동행 - 숨결같은 기도, 성경말씀에 맞들임, 성사와 전례생활에의 자발적 참여, 영적양식을 위한 독서, 사랑의 공동체와 이웃에게 봉사.

변화:

부르심에 대한 소명, 제자의 사역을 발견하고, 성령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제 1 강의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 16)

하느님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별하시기 위하여 감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어디까지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보다 더 하느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얼마만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지고자 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와의 사이에 울타리라든가 조금이라도 간격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 49; 15)

하느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상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복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죄악의 세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이 말씀으로써, 죄악에 물들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몸부림치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며 자비입니다. 이렇게 믿고 받아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예상하지도 못한 은총을 주시는데, 은총은 바로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한 1; 12-13)

제 2 강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1 베드 2; 24)

하느님은 우리들을 지금도 꼭 같이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옛날 낙원에서 살았던 때보다 더 귀한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즉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능력에는 도저히 미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어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값으로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 즉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이지만, 하느님은 그리스도 즉 말씀이신 하느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 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로마 3; 24-25)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하여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온 인간, 즉 구원 받은 인간이 되지만,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를 다시 죄악의 사슬로 묶으려는 어두움의 세력 -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 즉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의 악신들과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에페 6; 12)” 라고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듯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려 우리 인간을 속였던 이 세력들과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보다는 훨씬 거대한 힘, 세상의 뿌리깊은 악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 우리 인간의 눈을 혼란시키는 이 사악한 무리와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않은 조항이 들어 있는 우리의 빛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아 없애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골로 2; 14-15)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골로 1,13)

제 3 강의 새 생명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르코 1, 9-11)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마태 3,11; 마르 1,18; 루가 3,16; 요한 1,33)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새 생명 즉<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느님 성령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요한 3,5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새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로마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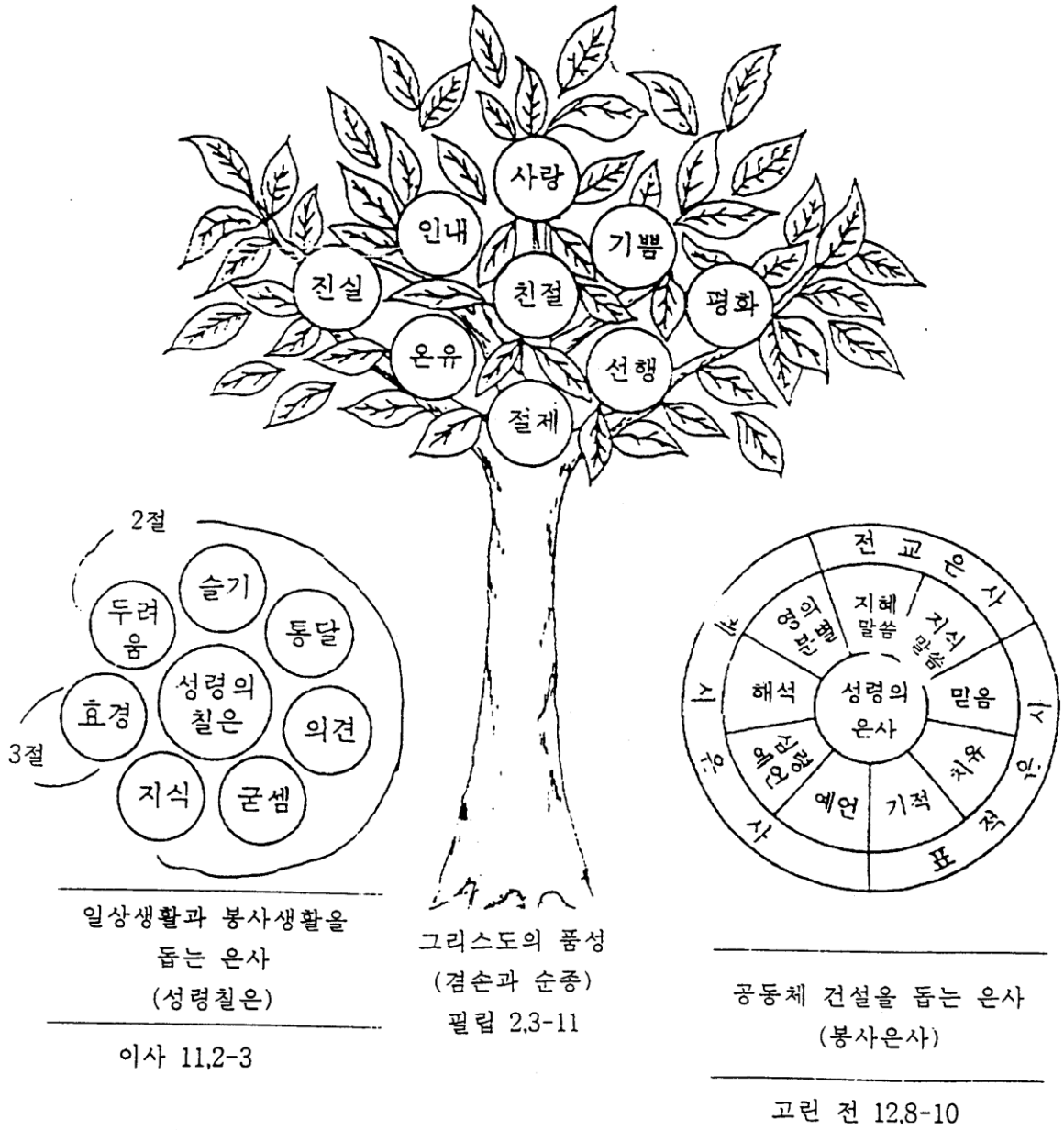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요한 5,24-26)

오순절에 사도들이 한 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아 갔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언변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들로 변화 되었고, 하느님의 성령을 따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나 신자들이 체험한 것과 똑 같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 들이면 이렇듯 성령 안의 세례로 새 생명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총의 선물도 받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의 은사들(1 고린 12,7-11 참조)과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갈라 5,22 참조)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한 새 생명과 여러 가지의 선물들을 받은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 14,15-17)

하느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선물 (은사와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 5,22-23



※ 성령의 은사는 옳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인 결손을 나무로, 순종은 나무의 뿌리로 볼 수 있다.

성령의 열매 (갈라 5:22-23)

1. 사랑의 열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적인 사랑 즉,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스스로 바치는 사랑입니다. (예; 모든 성인들의 사랑)
2. 기쁨의 열매: 기뻐해야 할 일이 없어도 흘러나오는 내적 기쁨으로 하느님의 사랑, 구원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예; 순교자들의 순교하면서 보여주는 기쁨)
3. 평화의 열매: 세상 풍파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화로써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깊은 내적 평화입니다. (예; 성체를 영함으로써 주님과 일치감에서 느끼는 평화)
4. 인내의 열매: 비록 일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실망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초자연적 힘입니다.
5. 친절의 열매: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따뜻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삶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느끼게 해 줍니다.
6. 선행의 열매: 주님께서 주신 재산, 시간, 재능 등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관대하게 사용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는 행위입니다.
7. 진실의 열매: 거짓이 없이 신뢰할 수 있고 착수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충실성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8. 은유의 열매: 자제된 힘으로 약자에 대해서도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힘입니다.
9. 절제의 열매: 욕정을 눌러 주님의 주권 하에 복종시키는 힘과 권위입니다.

일상 생활과 봉사 생활을 돕는 은사 (성령칠은) (이사 11:2-3)

1. 슬기의 은사: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세속 사람보다 귀하게 아는 지혜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과 하느님 나라의 사정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은사입니다.
2. 통달의 은사: 구원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입니다.
3. 의견의 은사: 우리가 행할 선과 피해야 할 악을 식별하여 선으로 이끄는 은혜입니다.
4. 지식의 은사: 믿어야 할 진리와 믿지 말아야 할 허위를 식별하게 하여 참 진리로 정진하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5. 굳셈의 은사: 신앙 생활에 수반되는 많은 장애를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용기의 은사입니다.
6. 효경의 은사: 하느님께 대한 자녀적 사랑을 증진시키는 은혜로 하느님께 대한 열성과 사랑을 복돋워 줍니다.
7. 두려워함의 은사: 하느님을 경외하여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 드릴까 염려하는 마음을 일으켜 삶을 정화시켜 주는 은혜입니다.

공동체(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은사 (봉사은사) (1 고린 12:8-10)

1. 지혜의 말씀 은사: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실천적인 말을 하게 하여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와 주어진 환경 속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사입니다.(예;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단죄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려 치시오”)
2. 지식의 말씀 은사: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설명하거나 설교할 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의 말씀이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을 초월하여 신앙의 진리를 단순하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증거하는 은사입니다.(예;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설교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스테파노의 의회에서 설교)
3. 믿음의 은사: 하느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리라는 내적인 확신을 갖게 하는 하느님의 힘으로,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어 중재기도, 치유기도, 기적 등의 바탕이 되는 은사입니다.
4. 치유의 은사: 하느님의 역사에 기인된 초월적 치유 능력으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병과 이 세상의 악한 환경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하느님의 질서 회복 능력입니다. (예; 예수님의 많은 치유 행적들)
5. 기적의 은사: 주어진 어떤 자연 상황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 현상이 이루어지며, 하느님을 증거하고 하느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느님의 강력한 의지의 은사로서, 중대한 병의 치유 등 물리적 기적,

믿음과 정신의 완벽한 변화와 같은 윤리적 기적이 있습니다.

6. **예언의 은사:** 모든 신자들이 갖고 있는 공동 예언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 공동체에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어 전하게 하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미래의 일을 말하는 소위 예언과는 다른 것으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사입니다.
7. **영 분별의 은사:** 하나의 생각, 활동, 사건 그리고 은사의 원인과 근원까지도 성령의 힘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힘인지를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주시어 직감적으로 분별하도록 하는 내적 계시 은사입니다.
8. **이상한 언어의 은사:** 이 은사는 이상한 언어로 하는 예언 은사(심령 예언 은사)와 이상한 언어로 하는 기도 은사(심령 기도)로 구분됩니다. 심령 예언 은사는 기도회나 집회에서 영감을 받아 이상한 언어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은사로, 반드시 다음에 해석의 은사로 연결, 일상언어로 해석이 나와야 합니다.
심령 기도는 이상한 언어로 하는 영감적인 기도인데, 누구나 할 수 있고 다른 봉사 은사 현현의 기초가 되는 관상적/ 영의 기도입니다.
9. **해석의 은사:** 이상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영감을 받아 그 뜻을 해석하여 일상언어로 풀어 전할 수 있게 하는 은사입니다.

제 4 강의 하느님의 은총을 받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 4 ; 14)

우리는 세례와 견진을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물의 소중함을 기억도 못할 뿐 아니라, 얼마나 좋은지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기다리며 돌아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분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니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악마의 유혹입니다. 다만 하느님을 신뢰하고, 마치 어린아이 처럼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그날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요엘 3; 1-2)

베드로 사도께서 오순절에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루가 15; 11-32 참조) 아버지의 자비하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 놓으며, 그렇게 사는 동안 내가 받은 많은 아픔과 또 내가 남에게 준 아픔을 아버지께 하소연하는 마음, 아버지를 떠나 사는 동안 힘들고 괴로웠던 생활을 털어 놓는 마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마음, “아버지, 제가 돌아 왔습니다, 받아 주십시오.”하고 솔직하게 회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돌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약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루가 11; 11-13)

아버지는 내가 돌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 가는 길은 곧 우리가 성모님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가 1; 38)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와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1. 자신은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실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이렇게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2. 자신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걱정:

성령 체험은 사도 시대에도 그리고 많은 성인 성녀들, 그리고 오늘날 교황님을 위시하여 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도 주님께 봉헌합니다.

3. 자신의 개성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는 두려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개성 및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느님은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범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실 정도로 우리의 개성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4. 하느님의 선물을 믿지않거나 거부하라는 유혹

유혹은 사탄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생기면 즉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불신과 유혹의 사탄아, 즉시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십시오.

5. 하느님의 선물이 필요 없다는 교만한 생각:

이것은 사탄이 넣어주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하느님께서서는 이 불완전함을 당신의 선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니,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십시오.

6. 남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걱정입니다. 고린토 전서 2:14 에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느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을 하느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루가 1:37-38a)

제 5 강의 성령 안의 세례를 위한 기도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2,1-4)

이제 우리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여기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쳐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을 바라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가득 차서 신령한 언어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요한 5: 24- 25)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 2; 33)

성령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함이 고쳐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불 타오를 것이며,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샘솟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 방법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더욱 더 성령의 힘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성장을 교묘하게, 교활하게, 집요하게 방해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진짜가 아니라든지 혹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속이려 합니다. 또는 반대로 지나친 확신으로 우리를 오도하려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없어졌고,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설 수 있다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 방법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느님께 의지하여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보호를 요청함으로써 늘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시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요한 16: 13-15)

성령 안의 세례(잠김)을 위한 기도

- 1) 세례성사 서약갱신
- 2) 서약의 기도
- 3) 구마 명령

1. 세례성사 서약 갱신

- * 여러분은 마귀의 모든 악과 유혹을 끊어 버립니까?
- *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로 부터해방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어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까?

2. 서약의 기도

예수님, 이제 저는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은 저의 것임을 압니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에게 받은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저는 새 삶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 안에서 주님의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제가 주님의 성령으로 세례성사의 은총을 깨닫고 제 생활 안에서
주님의 현존과 능력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제가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제가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성사 안에서
주님의 현존과 신비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제가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제 기도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모두 받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 제가 심령기도로 주님을 찬미하고자 하오니 받아 주소서! 아멘

3. 구마 명령

- + 부활하신 우리 주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 명한다.
- + 주님을 만나는 + 우리를 방해하는 + 의심과 불신의 영은 즉시
- + 우리를 떠나 + 주님이 명하는 곳으로 가라 + <심령기도>

제 6 장의 성령 안에서 성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요한 1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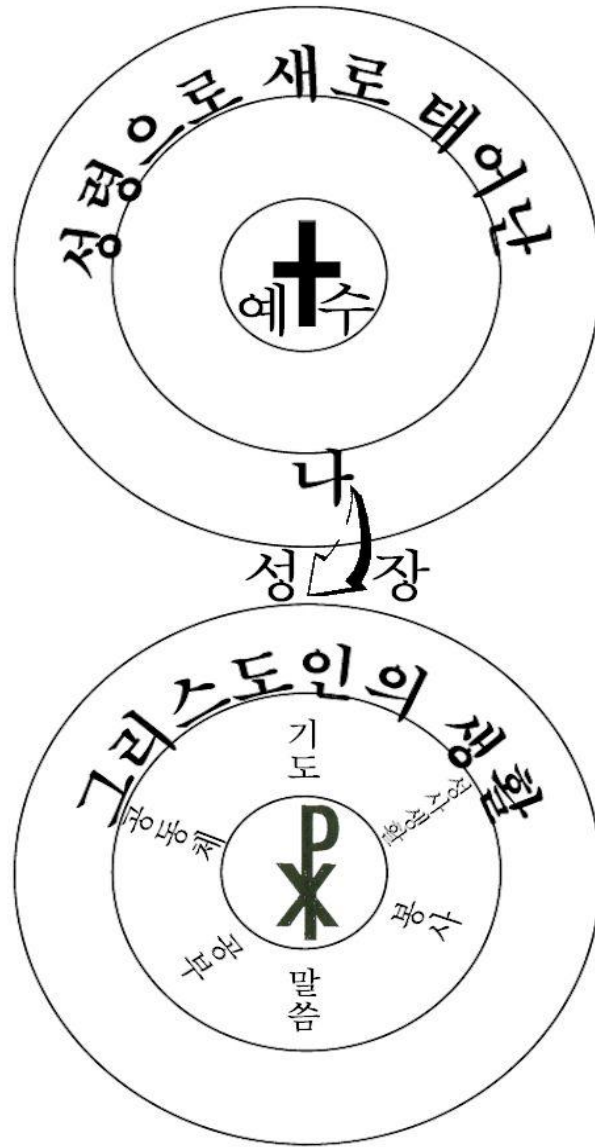
성령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생명과 사랑에 충만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활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모양과 정도와 때는 달랐을지 모르나, 지금 새 생명의 기쁨에 충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손길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 감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한편 새 생명으로 새 생활을 시작한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가 정에 귀엽고 보배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다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기를 훌륭하게 성장시켜야 하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심령도 이제부터 잘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뿌려진 새 생활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헨 옷에 대고 깎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헨 옷에 기워 댄 새 형질에 그 옷이 땅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헨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마르코 2; 21-22)

우리의 새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되어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성장하는 생명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성체성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안에서 전에 없이 기쁨을 얻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성이 나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부쩍 부쩍 성장하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게 될 때, 아주 쉽게 '나 자신'을 앞세우기 쉬워집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 하심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는 '자만심'이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시시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통하여 힘을 얻어 성장해가야 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요한 15; 4)

성장의 바퀴 (Wheel of Growth)



제 7 강의 그리스도로 변화됨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 16a, 17)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장 변화시켜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활이 보다 참되게 그리고 우리의 언행은 그리스도의 그것과 닮은 것이 되도록 우리의 생활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은총의 선물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작은 일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그분의 성령)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르 8; 34)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의 세력과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더욱 강력하게 저항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크게 성장하게 됨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고통을 당할 때 더욱 기뻐했으며 (로마 5; 3)” 야고보 사도의 “시련을 당할 때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야고 1; 2)”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 2; 20)

우리의 목표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후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반대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핍박을 받아 극복하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받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있는 지금 세상에 알맞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은 부족하기도 할 뿐 아니라, 그르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적들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부터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필립 1; 29)

기도문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에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우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주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을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삼종 기도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아침 기도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소서!
 *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 아멘.
 *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니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빠 여기시어 받아들이소서, 아멘.
 +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어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 아멘.
 +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 아멘.

저녁 기도

*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잠깐 반성한다)

◎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아멘.

*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시므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를 흠송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 아멘.

*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 아멘.